



'피아니스트'



'7년의 밤'

책 읽고 영화보고... 첫 작품 '제인에어'

원작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광주의 인문학 모임 '20세기 소설 영화 독본'이 2023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내년으로 15주년을 맞이하는 '20세기 소설 영화 독본'은 현재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대영이 2008년 12월 김형중 문학평론가와 함께 문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들은 당시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격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가지며 소설과 영화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현재까지 공유한 소설과 영화는 300여 편에 달한다.

1월부터 6월까지 계획된 20세기 소설 영화 독본의 상반기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책과 영화로 구성돼 있다. 모두 원작 소설을 읽고 이를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프로그램은 가난한 고아이자 독립적인 여성 제인이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삶

20세기 소설 영화 독본

내년 상반기 프로그램 공개

광주극장 영화의 집 격주 수요일

을 헤쳐나가는 내용을 담은 '제인에어'로 시작된다. 진보적인 의식이 담겼으며 뛰어난 심리 묘사와 이야기 전개로 만들어진 소설과 19세기 말 고전적 정취가 담긴 캐리 후쿠나 감독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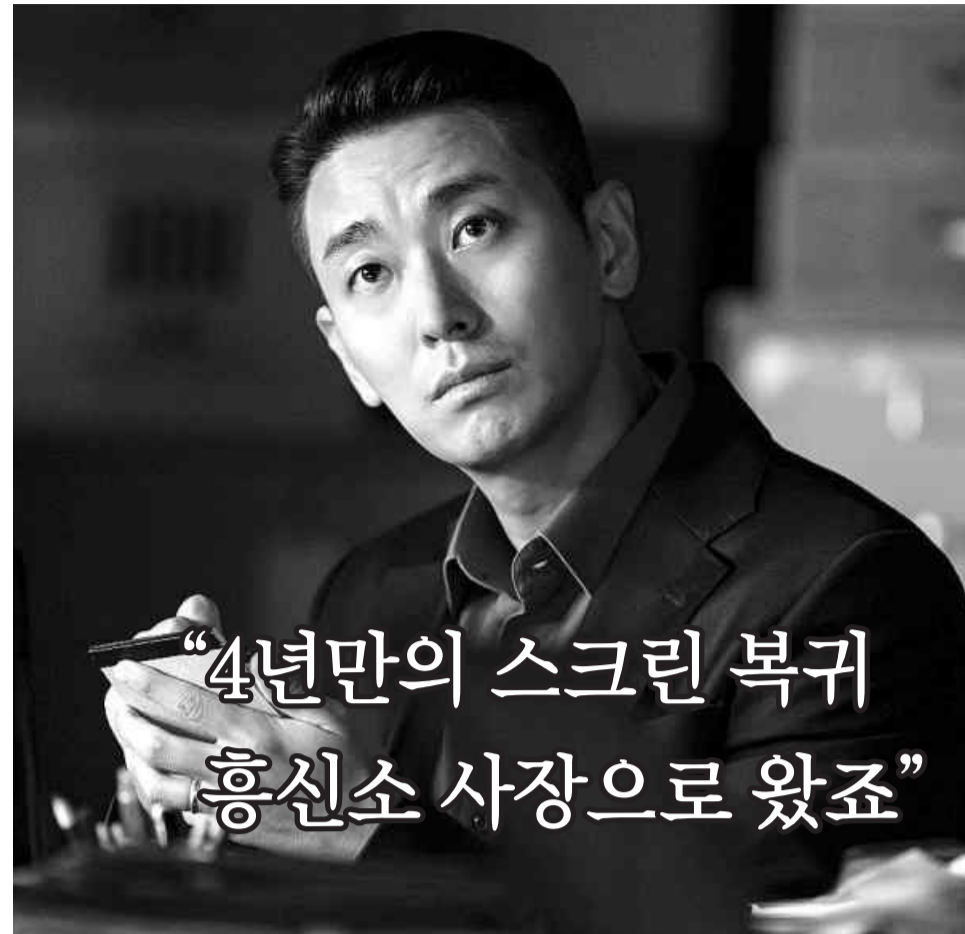
또 소설 '잘못은 우리 밖에 있어'와 영화 '안녕해 이별', 소설 '피아노를 치는 여자'와 영화 '피아니스트' 등을 보고 관람하며 원작과 영화를 비교해볼 수 있다. 네번째 모임에서는 '사랑에 빠진 여인들'을 읽은 뒤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난다. 다음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소설과 영화로 접하며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읽고 리처

드 에어의 '킹 리어'를 본다.

특히 7번째와 8번째 모임에서는 각각 김훈 작가의 소설이자 황동혁 감독의 영화인 '남한산성'과, 정유정 작가의 소설이자 추창민 감독의 영화 '7년의 밤' 등 한국 영화도 만나볼 수 있다. 9번째 모임에서는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조나단 트미 감독의 영화 '비러브드'를, 10번째 모임에서는 아베 코보 작가의 소설이자 데시자하라 히로시 감독의 영화 '타인의 얼굴'을 접한다.

이어 소설 '미하엘 콜하스', 영화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을 만나며 마지막 모임인 6월 21일에는 이청준 작가의 소설이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죽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세기 소설 영화 독본'은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열린다. 상반기 첫 모임은 1월 18일이며 모임에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책을 읽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 010-4660-5792.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4년만의 스크린 복귀 흥신소 사장으로 왔죠"

주지훈 '젠틀맨' 내일 개봉

사건 해결 과정 좌충우돌 이야기

이달 28일 개봉을 앞둔 영화 '젠틀맨'은 주지훈을 위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 해결률 100%를 자랑하는 흥신소 사장 지현수 역을 맡은 그는 특유의 능청스러움을 살린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깊숙하고 날렵한 몸매가 돋보이는 슈트를 입은 모습은 덩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야기의 힘을 느껴 출연을 결정했다"며 2018년 개봉한 '암살' 이후 4년 만의 스크린 주연작으로 '젠틀맨'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전달하고 싶은 바가 무겁게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위트있게 풀어냈더라고요. 또 힘있는 사람들이 거대 권력을 이겨내는 이야기는 자칫 허술해 보일 수 있잖아요. '저게 말이 되나?' 하는 부분을 극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 장치를 잘 심어줬다고 느꼈어요. 두 번의 반전이 있는데도 굉장히 쉽게 읽혔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경원 감독은 시나리오 집필 단계부터 주지훈을 주인공으로 염두에 뒀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지훈은 "대본을 봤을 때 말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나 여허나 분위기가 저를 놓고 쓴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감독님이 예능 같은 곳에서 보여줬던 제 개인적인 모습을 많이 보셨구나 싶었다"고 했다.

'젠틀맨'은 흥신소 사장 지현수가 의뢰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납치 사건 용의자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극 중 지현수는 문제 상황이 닥칠 때마다 타고난 기지와 센스를 가감 없이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간다.

차량 전복사고 이후 자신을 검사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애써 해명하기보다 여유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필요할 때는 반려견 애호가로 위장해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라는 말을 건네기도, 괜히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이며 "미남계"를 심분 활용하기도 한다.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하고 촬영했어요. 가끔 선글립만 바르거나, 다크서클 정도만 가렸죠. 결국 관객은 자기가 감명받은 장면 속 배우의 얼굴을 기억하더라고요. 비맞은 생쥐 꼴이 돼도 관객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하지 않아요. 못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건 영화가 감독과 재미를 주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에 맞추기 위한 정도로만 외관에 신경 쓰려고 해요."

'젠틀맨'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강아지 원고의 촬영 뒷이야기도 공개했다. 극중 사라진 의뢰인의 반려견으로 등장하는 웅은 현수와 함께 다니며 귀여움을 발산한다.

주지훈은 웅이 자신의 얼굴을 열심히 핥는 장면을 언급하며 "습식 간식을 얼굴에 바르고 촬영했는데 제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웅이 얼굴 부위를 핥으면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웃었다.

주지훈은 '젠틀맨' 개봉을 시작으로 영화 '사일런스'와 '피랍', 첫 고정 예능인 '두달로 타켓팅' 등 내년에도 바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일하는 게 재밌어요.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요. 요즘엔 정말 동료들에 대해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배우가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감독을 비롯해 촬영, 조명, 미술팀이 없으면 절대 구현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놓쳤다면...

ACC시네마테크 정기상영회, 29~30일 국내 수상작 등 5편 상영



이정홍 감독 '괴인'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을 놓쳐 후회하는 영화 팬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10월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대표작을 상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ACC시네마테크 정기상영회'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국내 수상작과 화제작 5편을 상영한다. 작품은 오는 29-

30일 오후 3시~7시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만날 수 있다.

첫날,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을 차지한 '괴인'을 비롯해 선제상을 받은 '그리고 집', 왓차단편상을 수상한 '타인의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 영화가 끝난 뒤에는 '괴인'을 연출한 이정홍 감독과 정지혜 영화평론가를 초청해 관객과 대화시간을 진행한다.

정기상영회 이틀째인 30일엔 김태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빅슬립'과 '피의 연대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보람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 스크린에 오른다.

올해 6월 시작한 'ACC 시네마테크 정기상영회'는 매달 국내외 대표적인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화제작, 한국영상자료원 복원작을 소개했다.

내년엔 아시아의 민주와 인권,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축제인 'ACC 나쁜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ACC 시네마테크는 한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소재로 한 기획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 마련해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전시는 내년 2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 정기 상영회와 전시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 062-223-8007